

경제 자료

2015년 북한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

남진욱

신년사 경제부문 비교(2010~16년) 및

국내 전문가 분석자료

김 옥

신년사 경제부문 비교(2010~16년) 및 국내 전문가 분석자료

김 욱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kimok@kdi.re.kr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네 번째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번 신년사에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관련된 내용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경제건설 각 부문별 과업이 세부적으로 제시된 만큼 경제 부문이 특히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의 신년공동사설·신년사의 구호, 전년도 경제부문 성과, 올해 경제부문 목표, 경제건설부문의 주요과업 및 방침을 비교하여 소개한다. 또한 신년사에 나타난 정책적 변화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기관 및 주요 전문가의 분석자료를 발췌·요약하여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본 자료에서 제공한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신년사 전문, 『노동신문』, 2016. 1. 1.
2. 통일부, 『2016년 北 신년사 분석』, 2016. 1. 1.
3. 양문수, 「2016년 북한 신년사 경제 분야 분석」, 2016년 북한 신년사 및 정세 분석 토론회, 2016. 1. 4.
4. 정성장, 「2016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권력변동과 대내외 정책 전망」, 『세종 정책브리핑』, 2016. 1. 3.

I. 신년사(2010~16년) 경제부문 비교

1. 구호

연도	구호
2016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
2015	- 모두 다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2014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2013	- 우주를 정복한 정신과 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2012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 훈련도 전투다! -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2011	-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2010	-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 인민을 돕자! -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2. 전년도 경제성과

연도	전년도 경제성과
2016	- 뜻깊은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당의 사상과 정책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과 사회주의선경마음들이 수없이 일떠서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조국의 기상을 과시하였음 -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금속공업의 주체화에서 큰걸음을 내짚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을 일떠세우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경보화를 적극 실현하여 전반적경제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놓았음
2015	- 당의 영도밑에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 - 군민협동작전으로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룸 -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지난해 농업과 수산, 과학, 석탄전선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음 - 건설부분에서는 조선속도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10월 8일 공장을 비롯하여 주체건축의 기준과 표준으로 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움

연도	전년도 경제성과
	- 부강조국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장병들은 결사관철의 정신과 일당백 기상으로 생산과 건설, 현대화 실현에서 돌파구를 열고 훌륭한 전형단위들을 창조
2014	▪ 지난해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노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을 벌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자랑스런 해 ▪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 단위들에서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고 자립적 경제의 토대가 더 튼튼히 다져졌으며 특히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어려운 조건과 불리한 자연기후 속에서도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 ▪ 마식령속도를 창조할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펼쳐나선 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노동당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움 ▪ 세포동판 건설을 비롯한 대건설 전투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며 자연을 길들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 놓음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준비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으며 현대적인 의료시설들이 갖추어져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가 개선됨
2013	▪ 지난해에 복잡하고 첨예한 경제와 현이여들이닥친 핵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견인불발의 의지와 백절불굴의 투쟁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함 - 회천발전소와 단천항을 완공한것을 비롯하여 주체화, 현대화가 실현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우고 기간공업부문의 중요생산기지들을 개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짐 ▪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양양된 애국적 열의에 떠받들려 평양시에 창천거리와 룡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전국도처에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들이 수많이 꾸려짐
2012	▪ 김정일의 정신적 영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대비약이 일어난 승리의 해 - 회천발전소를 비롯하여 2012년 축전을 기념할 기념비적 건축물들 건설 - 경공업공장 개건 완비, 현대화된 축산, 양어, 대규모 과일생산기지를 마련 ▪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 룡림과 대흥, 회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선경마을 건설
2011	▪ 강성변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난 거창한 변혁의 해 ▪ 민족사에 특기할 정치적 대경사들을 통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양양한 전도와 불패성이 과시 ▪ 강성대국의 리상을 전면적으로 꽃피울수 있는 토대가 축성 - 경공업과 화학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현관된 공업부문들에서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려짐 - 정보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라우는 혁혁한 성과들이 이룸
2010	▪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이 난 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화한한 시대가 펼쳐진 극적인 전환의 해 ▪ 지난해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사변들이 현이여 일어나 -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 제2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 성강에서 주체철생산체계 완성, CNC기술이 세계의 첨단을 확고히 돌파 - 태양절과 5.1절, 10월의 명절에 펼쳐진 축포야회 -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생산이 획기적으로 강성하고 전반적인 공업부문 활성화 -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가 창조 - 냉원발전소와 원산청년발전소, 미루벌물길, 만수대거리 살림집과 같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건설 - 남흥가스화대상공사가 완공되고 중요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 추진 -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 달성 및 협동농장들이 강성대국 리상촌으로 변화 - 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생산토대와 잠재력이 훨씬 강화

3. 경제목표

연도	경제목표
2016	-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함 -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전환을 가져와야 함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투쟁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고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제품의 질제고와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문제 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어야 함
2015	-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함 -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 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함 -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력문제 해결에 큰 힘을 넣으며 선행부문과 주요공업 부문들을 추켜 세 우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함 -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부문을 비롯한 기간공업 부문들을 발전시 키고 철도운수를 추켜 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해야 함 -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 을 적극 밀고나가야 함 -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높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함
2014	-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 기를 열어 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 - 올해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나가며 그 봉화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야 함 - 올해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 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함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 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높이는 것과 함 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함
2013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 양양을 일으키기 위 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함 - 경제사업의 핵심 추진목표로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음 - 첫째,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 강화와 적극적인 활용 - 둘째, '인민생활'의 안정과 향상 -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석탄, 전력, 금속, 철 도운수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져야 함
2012	- 우리 당의 웅대한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함 -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장군님의 강성부흥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 모든 힘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야 함
2011	-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함 -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야 한 다는 것이 우리 당의 투철한 입장임
2010	- 우리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총 집중, 총동원하여야 함 -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리 는 것, 이것이 올해의 총적인 투쟁방향임

4.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연도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2016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 강조 - 천만가지 국사가운데 인민생활문제가 제일국사 - 전력문제 해결 - 농산, 축산, 수산부문 혁신을 통해 인민생활 개선 - 본격적인 산림복구 - 대기와 강하천,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 확립사업 적극 조직전개
2015	'과학기술의 힘'을 통한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 강조 - 농업·축산·수산 3대 축으로 먹는 문제 해결 - 경제개발구(원산·금강산 등)사업 등 대외경제 다각적 발전 시도 - 경공업 생산 정상화로 소비품 공급 보장 - 석탄공업 부문과 화력발전소 혁신 등을 통하여 전력문제 해결 - 산림복구 및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 - 공장·기업소 원료·자재·설비 국산화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 및 기업체의 주동성·창발성, 당적 지원 강조
2014	- 농업 주타적 방향, 건설의 변영기,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구호 강조 - 금속,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의 쌍기둥 - 전력 및 석탄 증산·철도운수 개선 - 경공업 CNC화, 국산화, 지방공업 발전 - 고깃배·여구 현대화, 바닷가 양식 - 지하·산림·해양자원 보호, 나무심기 -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 강화 - 경제사업 지도·관리 관련,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기업체의 책임성·창발성 강조
2013	- 생산적 양상을 위한 총동력전·사회주의 증산경쟁 강조 -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알곡생산목표 달성, 원자재 보장) - 석탄, 금속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함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
2012	- 함남의 불길은 2012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기치 새로운 전환의 기치 -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은 경공업 - 식량문제 해결이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 4대 선행부문 및 기초공업부문의 생산력 강화 - 새로운 100년 대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돌파구 - 새 세기 산업혁명인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
2011	-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임 4대 선행부문 및 화학공업기지의 생산 정상화 - 석탄공업부문, 전력공업부문, 금속공업부문, 철도부문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밑돌이 되어야 함 - 경공업혁명은 곧 화학혁명 -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나가야 함 -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내에 뛰어넘어 지식경제시대의 전열에 서야 함 - 자력강생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함 - 경제관리를 개선해야 함 - 국방공업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원천이며 인민생활향상의 믿음직한 담보
2010	-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이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 해나갈때 인민생활에서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임 -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함

5. 경제부문별 과제

연도	경제부문별 과제
2016	■ 전력부문 - 지금 있는 발전소들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려 전력생산을 최대한 높이며 단전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기 위한 투쟁과 자연에너지원을 적극 리용하여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함 ■ 석탄공업부문 -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함 ■ 금속공업부문 -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우고 김철과 황철을 비롯한 금속공장들에서 주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확대하여 철강재생산을 높여야 함 ■ 철도운수부문 - 규률을 강화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여 열차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며 철도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함 ■ 농업부문 -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며 영농과정별 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 ■ 축산과 수산부문 -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고 전국도처에 건설한 양어장과 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여야 함 ■ 경공업부문 -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세워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함 ■ 건설부문 - 당의 건설방침과 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 시대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우며 건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야 함 ■ 과학연구부문 -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최첨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함 -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함 ■ 기타 - 경제지도일꾼들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부문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는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작전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함
2015	■ 경공업부문 - 인민들 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체로 일떠 세우기 위한 책략을 세우며 중앙과 지방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 식료품들을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함 ■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함 - 최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여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함 ■ 농업부문 -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함 - 농업부문에서 물 절약형 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전국 도처에 마련해 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연도	경제부문별 과제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함 ■ 화학공업부문 - (석탄공업 및 전력공업) 석탄과 전력생산을 높이며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전력 수요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 있게 세워나가야 함 -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부문들 기간공업 부문들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 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함 ■ 대외경제 -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함 ■ 건설부문 - 조선속도 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발전소와 공장, 교육문화 시설과 살림집들을 노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로 일떠 세워야 함 ■ 기타 -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함 -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력문제 해결에 큰 힘을 넣으며 선행부문과 주요공업 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함 -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높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함 - 각급 당조직들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으로 강하게 밀어주어야 함
2014	■ 농업부문 -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이고 농업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여 사회주의 농촌체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야 함 - 과학적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함 -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함 ■ 건설부문 -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 물길공사를 비롯한 주요 대상 건설을 다그쳐 제 기일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함 - 살림집 건설과 합숙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문화봉사기지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일떠세워야 함 ■ 전력부문 - 살림집 건설과 합숙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문화봉사기지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일떠세워야 함 ■ 화학공업부문 -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리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연대적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 나가야 함 ■ 경공업부문 - 경공업공장들에서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여러 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함 ■ 수산부문 - 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 관철하여 물고기 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깃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물고기잡이 전투를 힘있게 벌여 포구마다에 만선의 뱃고동 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닷가양식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함 ■ 기타 -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2013	■ 석탄·금속공업부문 -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함 ■ 농업부문 - 농업과 경공업은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이며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경공업공장들에 대한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함 ■ 축산과 수산, 과수부문

연도	경제부문별 과제
	-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더욱 풍족하게 하여야 함 ▪ 과학기술부문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생산을 높이며 나아가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함
2012	▪ 경공업부문 -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이미 있는 발전소들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 4대 선행부문 및 화학공업부문 - (석탄공업) 화력발전소와 화학공장금속공장들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며 새 탄 발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함 - (금속공업부문) 주체철생산능력을 더 높이고 우리의 연료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압연 ▪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함. - (철도부문) 나라의 철길을 일신시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철도수송능력을 높이고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 - (화학공업부문) 주체비료생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 생산능력을 부쩍 높이고 비닐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섬유 합성수지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하여야 함 ▪ 기타 - 최신식 CNC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련하의 개척정신 련하의 창조기풍으로 전반적 기술장비 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워야 함 - 과학연구기관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 기초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 발전에 더 큰 힘을 넣으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함
2011	▪ 경공업부문 - 경공업의 해인 올해에 경공업부문을 우선시키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일대 선풍이 온 나라에 휘몰아치게 하여야 함 -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함 - 1차소비품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에 널리 쓰이는 필수품생산에 힘을 집중하면서 전반적 소비품생산을 확대강화해 나가야 함 -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소비품의 가치수를 높여나가야 함 - 인민소비품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함 -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며 자체의 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야 함. - 8월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생활필수품생산을 부쩍 늘여야 함 - 상품공급사업과 급양봉사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 4대선행부문 및 화학공업부문 - (석탄공업)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들에 힘을 집중하고 새 탄발들을 개발하여 석탄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 (전력공업) 전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고 송배전체계를 개선완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함. - (금속공업) 철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함 - (철도) 전반적수송수요를 원만히 풀어야 함 - (화학)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섬유와 수지, 각종 기초화학제품들, 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보장해 주어야 함 ▪ 농업부문 - 당의 중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공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여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물자들을 영농공정에 앞세워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함 ▪ 기타 - 기계공업뿐 아니라 전반적 공업부문에서, 중앙공업뿐 아니라 지방공업에서도 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게 하여야 함 -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원료도 해결하고 자금도 확보해나가야 함 - 국방공업부문은 앞으로도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 경제전반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함
2010	▪ 경공업부문

연도	경제부문별 과제
	-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함 -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선풍을 일으켜야 함 -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함 ■ 농업부문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공농사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 주체농법의 요구를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받아들여야 함 - 주체적인 육종체계가 서고 실리주의원칙이 구현된 현대적인 축산, 양어, 과일생산기지들이 현실에서 커다란 은이 나타나게 하여야 함 ■ 금속공업부문 -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주체철생산능력을 높이고 당이 제시한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함 ■ 전력공업부문 - 화력발전소들의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화전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 석탄공업부문 - 화력발전소들과 화학공장들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필요한 석탄을 무조건 생산보장하고 현대화를 다그쳐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함 ■ 철도운수부문 -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기관차와 화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철도의 현대화, 철길의 중량화를 실현하여야 함 ■ 기계공업부문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CNC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공구혁명을 일으켜 성능높은 첨단기계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함 ■ 기타 -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을 철저히 구현하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혜택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게 하여야 함 - 평양시의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며 도시와 농촌들에 21세기의 사회주의 선경거리, 선경마을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함 - 상품유통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인민봉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함 -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자체의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현대화, 과학화를 전망성 있게 진행하여야 함

II. 주요 기관 및 전문가별 신년사 분석 - 경제분야

1. 통일부,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2016. 1. 1.

가. 경제 분야 과제

-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 촉구
 - 선행부문(전력·석탄·금속·철도)에 주력, 농·축수산업 증산, 경공업 현대화·국산화 및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건설부문에서 주택·교육문화시설 공급, 산림복구 본격화, 과학기술 개발·보급 활성화 등
- 대외경제 부문 언급 없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적 확립 강조
 - 조건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내각과 국가 경제기관들은 당 정책으로 무장하고,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
-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경제강국 건설’의 과업 제시
 - 농업근로자는 농업생산에서 분발, 지식인은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과학기술 성과 창출, 청년들은 강성국가 건설에 청년영웅이 될 것을 강조
 - 집단주의적 경쟁과 ‘자강력(自強力)제일주의’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촉구
- 사회부문에서는 ‘최상의 문명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
 - 교육 조건과 환경 일신, 치료예방사업 개선, 체육의 생활화·대중화 및 국제경기에서 신화 창조, 문학예술 시대명작 창작, 도덕기강 확립을 위한 건전 생활기풍 등 요구

나. 분석

- 2015년과 달리, 정치·군사 분야보다 ‘경제’ 분야에 대한 과업 우선 제시
 - 특히, ‘전력’ 문제의 최우선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석탄·금속·철도부문의 현대화 지시

-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농업·축산·수산, 경공업, 건설, 산림복구, 과학기술 등 분야는 예년 수준의 과업을 제시
 - 한편 ‘자강력(自強力)제일주의’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힘·기술·자원’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강조
- 경제관리 분야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거론하였으나,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음.
- 2015년과 달리 ‘경제개발구’ 등 대외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미언급

2.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6년 북한 신년사 경제 분야 분석」, 2016년 북한 신년사 및 정세 분석 토론회, 2016. 1. 4.

가. 주요 내용 및 특징

- 종전의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경제분야에서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노선의 제시는 없었음.
-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조
 - 2014년(농업, 건설, 과학기술 등 3대 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조), 2015년(선도적 부문에 대한 언급 없이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과는 미묘한 차이
- 특히 전력문제의 최우선적 해결을 주장
 - 전력문제가 중요시되지 않은 해는 없었지만 올해는 특별히 강조되었으며, 전력문제 해결 방안도 2015년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
-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도 중요한 과업으로 재등장
 - 2014년에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강조했으나 2015년에는 언급이 빠졌다가 2016년에 다시 등장
- 아울러 여전히 ‘인민생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거론

- 하지만 ‘인민생활’ 개선/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음.

나. 전반적인 경제정책기조

- 2016년 신년사는 북한정부가 2015년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온건한 경제정책 혹은 무리를 하지 않는 경제정책, 안정적 경제운영 또는 실용주의적/현실주의적 경제정책 기조를 펴 것임을 암시하고 있음.
 - 다만 산업정책/자원배분정책적으로는 기존의 농업, 건설, 과학기술 중심 정책에서 전력, 석탄, 금속 등 일부 인민경제 선행부문에 대한 상대적 중시 등 약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음.
-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산업정책 중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의 하나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나아가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상대적으로 축소 경향
 - 동시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활용하여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문인 농수축산업, 일부 경공업, 일부 건설(주택 등)에 자원투입을 집중하는 경향 관찰
-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은 김정일 시대보다, 비록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실용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평가¹⁾할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은 2013년부터 시간이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²⁾.
- 신년사에서 2014년부터 이러한 실용주의적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
 - 농업, 건설, 과학기술 등 3대 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들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
 - 다만 농업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주타격방향’으로 설정

1)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실용주의’적 요소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이석기, 「2013년 북한의 산업부문 동향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월호, 2014; 이석기, 「2014년 북한 실물과 산업동향 평가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월호, 2015; 이석기, 「2015년 상반기 북한 실물 및 산업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8월호, 2015 등을 참조.
2)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상대적 실용주의 정책,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투자 정책이 2014, 2015년 북한 시장 물가 및 환율의 안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으며 필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 과학기술을 강조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건설이 국가경제운영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으면서 신년사에도 그 중요성이 언급된 것은 2014년이 처음.³⁾
- 2015년도 신년사는 그 해 경제정책의 총괄특징으로 “이미 마련된 자립 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한다”고 쓰고 있음.
 - 이는 2015년도에 북한정부가 대대적인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나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
 - 2009~12년간 새로운 투자와 대규모 건설 사업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하던 때에는 통상적으로 ‘사회주의 대진군’과 같은 격한 동원성 구호가 경제정책의 핵심 슬로건이었음.
 - 그러나 2015년에는 격한 동원성 구호가 등장하지 않는 대신에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정상화하고 최대한 활용한다’는 식의 정책이 내세워진 것임.⁴⁾
- 또한 2015년 신년사에서서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농업(농수축산업), 건설, 과학기술 등 3대 부문을 강조하고 있음.
 - 선도적 부문에 대한 언급 없이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
 - 인민생활향상 위해 농산,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설정
 - 건설업의 중요성 여전히 강조
 - 제조업, 특히 중화학공업 부문은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보다는 기존 설비를 잘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신년사에서 제시한 대로 2015년 한 해 동안 북한은 대대적인 신규투자나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특히 일각에서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북한이 도중에 경제정책을 갑자기 급진적 동원정책으로 바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으나 북한정부는 연초에 내세운 대로 온건한 경제정책을 연말까지 유지한 것으로 보임.
 - 이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가능. 즉 하나는 재원부족에 따른 불가피성, 즉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리를 하지 않는, 따라서 자원낭비를 피할 수 있다는, 즉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임.

3) 건설분야는 2015, 2016년에도 그 위상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4)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정책 전망」, 『Online Series』, 2015. 1. 1.

- 2016년 신년사에도 대대적인 신규투자나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음.
 - 굳이 따지자면 단천발전소 건설이 유일함.
 - 2015년에는 당해 연도의 중점 추진 건설대상으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를 거론
 - 2014년에는 당해 연도의 중점 추진 건설대상으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 간석지 건설, 황해남도 물길공사를 거론

- 이와 관련, 다음의 언급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
 - “내각과 국가경제기관들에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 조건이 불리하고 애로가 많을수록 경제발전의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고 거기에 역량(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

- 즉, 기존의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형태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음.
 - 국가의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는 현실을 수용하면서 우선순위에 입각한 경제운영을 보다 확대·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달리 보면 국가가 장악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영역은 종전보다 자원 투입 증대 등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 반면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영역은 축소⁵⁾ 또는 사실상 분권화의 확대

5) 2016년 신년사만 놓고 보면 화학공업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14년 신년사에서만 해도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고, 2015년 신년사에서도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동렬로 취급되었으나 2016년 신년사에서는 금속공업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화학공업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3.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2016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권력변동과 대내외 정책 전망」, 『세종 정책브리핑』, 2016. 1. 3.

- 김정은 제1비서는 2015년 신년사에서 새해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정치군사 분야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 대해 언급했는데, 2016년 신년사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정치군사 분야에 대해 언급했음.
- 경제개혁의 전망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 전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임.
 - 김정은은 2013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우리식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하고 근로인민대중이 생산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에서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강조는 필자)라고 지적함으로써 경제관리방식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했음.
 - 2015년 신년사에서는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 요구에 맞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모든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의 실험 단계에서 구축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했음.
 - 그런데 2016년 신년사에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강조하고 있어 그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던 북한판 개혁인 6.28방침과 5.30조치가 향후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 당은 인민생활 문제를 천만가지 국사 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특별히 강조했음.
 - 김정은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경제관에 기초해 경공업과 농업보다 중공업을 더 중시했던 김일성과 김정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과 농업, 수산과 축산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그러한 그의 입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김정은은 이미 2013년 신년사에서 “경제건설의 성과는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리는 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 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음.
- 2015년 신년사에서 “어머니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 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 넘치게 하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 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음.
- 경제 분야에서 흥미로운 것은 “도시와 농촌, 일터와 마을들을 알뜰하게 꾸리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대기와 강하천,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강구를 지시하고 있는 부분임.
-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신년공동사설과 신년사에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음.
- 그런데 북중접경지역을 답사해보면 두만강의 오염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음.
-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은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제는 환경문제에 대해 신경 쓸 여유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